

舞 朝鮮 무용 통신

発行 :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舞踊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03-3817-0431

제 11 호 (루게 제 11 호)

주체 9 2 (2 0 0 3) 년 10 월 4 일 (토)

기량제고와 맹원들의 뉴대 깊이는 마당

문예동 제2차 무용(독무)경연대회 진행

재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 제 2 차 무용(독무)경연대회가 13 일 神奈川현의 鶴見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경연대회는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지키며 동포들에게 희망과 랑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 있는 수단으로 되는 민족무용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예동 무용부 맹원들의 기량을 한층 높이자는 취지밑에 지난해에 이어 가졌다. 문예동도쿄, 니시도쿄, 가나가와, 도카이,

오사까, 호고지부관하 29 명의 맹원들이 가조(30 살이상), 나조(30 살이하)로 나뉘어 일상시 련마해 온 기술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대회는 기량제고는 물론 각지에서 활동하는 맹원들의 단결과 뉴대를 깊이는 마당으로 되었으며 문예동 무용부활동을 강화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가나가와를 비롯한 각지에서 온 350 여명의 무용애호가들과 동포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무용을 피로한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대회에서는 제 13 차 《2.16 예술상》 개인경연 무용부문에서 2 등을 수상한 도쿄조선가무단 계영순단원의 인터뷰와 수상작품발표가 진행되었다.



대회개회식



◁ 나조의 기본동작 심사 모습

도쿄가무단 계영순 단원의 독무 ▷



문예동 제 2 차 무용(독무)경연대회 성적

가조부문

- 금상** 김선혜(도쿄) 《도라지》
 문유미(효고) 《바라춤》
- 은상** 리옥민(도쿄) 《조개춤》
 리려화(오사카) 《장고춤》
- 동상** 정 진(니시도쿄) 《조개춤》
 장애림(가나가와) 《소고춤》

나조부문

- 1등** 안청미(도카이) 《북 춤》
- 2등** 리미순(도카이) 《나의 초소》
- 3등** 손홍미(도쿄) 《조개춤》

여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상 문유미
심사위원회상 문예동 도카이지부



문유미(효고)



안청미(도카이)



리려화(오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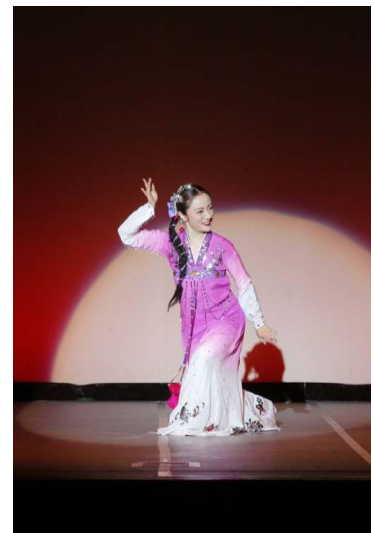
리미순(도카이)



손홍미(도쿄)



리옥민(도쿄)



김선혜(도쿄)

기쁨의 목소리

문예동 효고지부 문유미

저는 이번 문예동 제2차 무용경연대회에서 영예롭게도 나조에서 《금상》을 수여 받고 《특별상》까지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들 2명을 키우는 33살인 저는 《독무》란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개인무대에는 자기와의 엄격한 투쟁이 필수라고, 한번은 단념했습니다. 그럴 때 문예동효고지부 김선옥부부장이 일을 더욱 잘하자면 우리의 기량을 높여야 한다. 한번 해보자!》고, 자신이 없었던 나의 마음에 결심을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낮에 주 4번에 걸치는 학교강당에서의 연습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디오를 통한 동작풀이와 훈련, 집에서도 자동차안에서도 몸에 베이듯 무용음악을 듣고 또 듣곤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몰래 남편과 아이들도 응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준비과정에 조국멀리 이역에서 태어난 자신이 민족교육을 통해 우리 춤을 배웠다는 것, 계속 문예동에 망라되어 민족심과 밝은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하여 춤을 통해 동포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영예를 잊지 않고 오늘 세대교체와 더불어 민족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속에서 이 무용활동을 통해 민족성을 고수하는 운동에 더 적극 기여해나가며 자기의 무용인생을 더욱 빛내여 나가겠습니다.

일본을 떠나면서...

문예동 도쿄지부 손홍미

저는 이번 독무경연을 통해 호흡조절이 약하고 하반신 동작이 미숙한 자기의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녀성다운 부드러움이 요구되는 《조개춤》을 선택하여 출연하였습니다.

같은 동작만을 자주 지적 듣는 자기자신에게 실망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많은 협력을 주시고 지도도 해주신 여러 선생님, 문예동맹원들의 덕택으로 가조 동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적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7월말부터 조국에 가서 더 많은것을 배우자고 결의다지고 있습니다.

런재지식

로동계급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약동적인 무용(요지)

— 독무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에 대하여 —

주 문 결

무용수들의 예술적기량을 한계단 높이자면 독무분위로 나가야 한다. 독무는 무용수 한사람이 생활을 형상하여야 하는것만큼 무용기교가 높아야 한다. 독무형식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기교다.

독무 《검차원의 영예》에는 높은 기교동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옆으로 잔발걸어 꼬아걸으며 마치를 휘둘러 때리는 동작, 뒤로 잔발걸기와 제자리돌기배합동작, 마치로 때리고 귀로 들으며 엇걸어 도는 동작, 발끝 세워 섰다가 앞으로 한발 내짚으며 엇걸어 돌기와 돌아나가는 동작, 잣은발걸어 순간 엇걸어 돌며 무릎 굽혀 앉아 마치로 때리고 뒤로 도는 동작, 원2회를 맴돌아 급격히 서서 떠나가는 렬차를 바래주는 동작 등 무용수의 많은 숙련을 요구하는 높은 기교동작들이 많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에서 무용음악과 무대미술도 큰 역할을 놀았다. 긴 호흡의 리듬과 경쾌한 리듬과의 대조를 이루는 선율, 경과적인 음들에서 독특한 정서를 안겨주는 변화음들의 류창한 진행, 대구적인 선율발전법 등의 독특한 표현들로 이루어지고 가사까지 동반된 명곡 《직포공의 마음》은 무용작품의 내용과 사상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었으며 무대환등은 무용의 시각적특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이렇듯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는 주제를 다양하게 개척하는데 있어서나 춤가락과 무용동작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무용수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우리 무용예술인들은 이미 창작된 좋은 무용들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무용소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야 할것이다. (끝)

현계광창작무용발표회

나의 무용인생 민족의 넋을 찾아

2003년 12월 1일(월) 北とぴあ (JR 王子駅下車)

오후 6시 개장 / 6시 30분개연